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어머님의 한 마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갈등'이다.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쉽게 그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대와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다. 많이 배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찾아 가르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박여범

웅북중학교 교감 · 시인 · 문학박사

무엇이든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야만 만족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소하게는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려면 부모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경우가 대분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눈치를 봐야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추진하려면 위축되기 십상이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짧은 설명에도 바로 이해를 하는 아이가 있다. 반면에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거나 과외를 통해 습득한 지식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후자의 경우는 정말 교과서를 받기 전까지는 무작정 놀다가 책을 펼쳐보지 못하는 것 투성이이다.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습 효과는 전자보다 후자가 높게 나타난다. 이미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아이들은 대다수가 학원에서 배운 것은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생님은 그저 복습해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수업의 반응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아이는 교사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영리한 녀석들이 많다. 말해 뭐 하겠는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아이에게 뒤쳐질까 두려운 부모의 심리가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정확하지 않지만, 총복 육천의 00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시절, 나는 학교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녀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첫 감독시간, 시험지를 받아들이고 덜덜덜 때는 녀석을 만났다. 우황청심환까지 먹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인절 부절 못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감독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할 수도, 무엇을 딱히 도와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어찌어찌 안타까운 마음에 시험을 마친 녀석은 풀이 죽어 있었다. 모든 과목에 100점을 맞지 않으면 전학을 보내겠다'는 엄마의 한 마디가 아이의 머리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종종 매스컴에서나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

지고 있는 상황에 잠시 먼 산을 바라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녀석의 답으로 상담을 핑계 삼아 시험시간에 발생한 일련의 해프닝(?)에 대해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녀석은 심글렁글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대박, 쌤, 올 얼마가요, 쌤, 미쳤나봐요? 아, 올 엄마가 시험 첫날 망쳤다고 했더니, 반응이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단단히 혼이 날 거라고 각오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남은 과목 잘 보자. 큰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시험을 보거라.' 하시지 뭐예요? 대박, 깜 놀랐어요? 그래서 편하게 나머지 과목은 잘 봐서 성적 기대보다 잘 나왔어요, 쌤."

\*\*\*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아이의 웃음 뒤에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자식의 All 100점을

기대하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한 마디가 아이를 변화시키고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 이 짧은 한 마디가 녀석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을 녀석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에 전화기를 붙들고 수다를 떨던 기억이 생생하다.

녀석도 지금은 30대 중반의 나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의 교육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고민의 해결책을 그 시절 어머니의 한 마디를 떠올리면 정답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교육의 출발은 '남상머리'가 아닐까? 한다. 학습의 시작은 '가정'이다. 그만큼 부모의 말 한 마디나 사소한 행동이 아이의 정서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은 한 마디로 '전쟁터'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 되돌아보는 여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 어디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 '가정', '모임', '학교', '지역사회', '직장' 뿐이겠는가?

우리 삶은 이미 '최선' 보다는 '최고'를 양산해내려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풀지 못할 영원한 수수께끼가 될 수도 있다.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깨우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머니와 녀석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설

코로나 청정 환경 계속 강고하게 지켜야

얼마 전에 당부한 바 있지만 전북도는 청정 환경 지키기를 계속 강고히 해야겠다.

사람에게 웰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깊어지는 날이다. 뉴스를 통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5천명 밖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서른여섯 명이나 된 것은 보통 사태가 아니다. 집작컨대 독자들이 이 사실을 읽고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안좋아져 있을 터이다.

실시간대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대구 지역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 확진 환자가 하루밤 사이 수백명 단위로 마구 불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사망자가 날마다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산시도 매우 심각하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구 못지 않게 코로나19가 창궐할 조짐이다. 비유컨대 대구와 경북 지역은 여기저기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무섭고 살벌한 분위기가 일 것이다.

지금 전북도와 보건 당국은 잘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하고 있다. 도내에 코로나 확진환자가 7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북도와 보건 당국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신천지 신도 관계자들의 잘못이 크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우리 전북의 경우는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천지 신도 관계자들이 협조해주면 앞으로도 이렇게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을 터이다. 이것은 연라두절 신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 이 지면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 코로나 19와의 전쟁은 전북도와 보건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할 말이 있다. 보건 당국이 계몽하는 대로 순응하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와 관련하여도 할 말이 있다. 시민의식을 제대로 발휘해주었으면 한다.

마스크 품귀 사태는 시민의식이 실종된 탓이 크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내 가족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떨쳐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년 취업의 불날 언제쯤 올 것인가

봄철이 가까운 때이다. 전북도에 청년 취업의 불날은 언제 오는가 라는 궁금증을 전하고 싶다.

저번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년 취업률이 약간 올랐다고 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아니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 그대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들 중에서 16위를 기록하였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청년 취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

취업을 보고와 관련해 전북도에 할 말이 있다. 때때로 보고하는 내용이 애매해서 말이다. 전북도가 내놓은 보고와 서울 쪽 언론사에서 내놓은 보도와 맞추어보면 서로 안맞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당부한다. 전북도는 무슨 보고이든 있는 그대로 정직해야겠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관철하는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취업을 전국 최저 수준

이라는 성적표를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것인가.

전북도는 비정규직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통도 보아야겠다.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취업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거들 말하거나 청년 취업문제는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한두 번 해결을 모색해보고 성과가 미흡하다며 그만 둘 것도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해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주어야겠다.

취업 실적이 낮음에도 관철은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능력 발휘가 관건이다. 청년 취업의 불날이 빨리 와야 할 터인데 걱정이다.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관계자들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코로나19 대비 생활품 구하는 호주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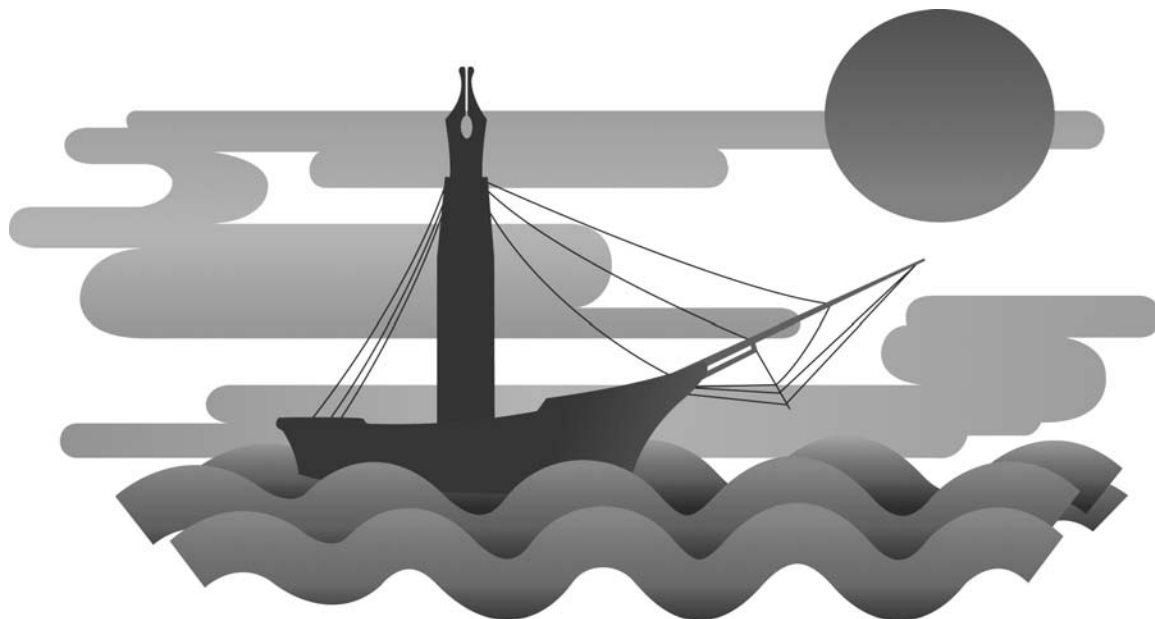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의 코스트코에서 주민들이 생활품을 사고 있다. 호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주민이 각종 생활품을 구매하고 있다.

터키 내 난민들 "울타리 넘어 그리스로"



4일(현지시간) 터키와 그리스 국경 지역인 파지르쿨레에서 이주민들이 그리스로 넘어가기 위해 터키 당국이 설치한 울타리에 오르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